2018년 국가직 9급
【국어】 기출 문제 해설

0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해설

로마자 표기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2항에 관한 설명이다. ②의 '반구대'의 로마자 표기법을 붙여 쓸 경우 'Bangudae'로 'ng'가 'o'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즉 '방우대'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붙임표를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②

0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숱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②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③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해설

지문에서 언간에 대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중심내용은 '②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가 적절하다.

>>정답 ②

03.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해설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면서 (어미)
「1」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그 옷은 거무스름하면서 보랏빛을 띤다.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자기는 놀면서 남만 시킨다.

>>정답 ③

0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통일성은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글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보면, 지문의 내용은 수학 선생님 덕분에 글의 화자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은 이와 관련이 없는 '수학 선생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정답 ③

0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져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③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④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해설

(가)는 정철의 시조로 충신연주지사에 속하는 시조이다. (나)는 임제의 한시 무어별(無語別)이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달'을 만들어 임 계신 곳에 비추어 보겠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나)의 '아가씨'는 남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눈물을 흘린다. 즉 (가)의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두 시를 적절히 이해한 것은 ②이다.

① 장천은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고, 시적 화자가 장천을 통해 임에게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공간이다.
③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며, 관찰하는 대상이다.
④ (나)에서 '달'은 임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정답 ②

0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

①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③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④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해설

㉣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데서, 시적 화자가 지난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는 행위를 통해 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① 대합실의 상황은 안온하지 않다.
② 색채 이미지가 대조적이지만 눈 오는 겨울 풍경을 서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0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 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 –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해설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마름인 장인에게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해야 소작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장인님', '장인께', '욕필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③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하고 부르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 마름으로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의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0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① 協商　② 協助　③ 協奏　④ 協贊

해설

'보기'에서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데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는 '협상(協商)'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협상(協商): ㉠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의논함. ㉡ 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 또는 그런 약식 조약. 조약과 달리 국가 원수나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친화적 국제 관계를 맺을 때에 행한다.
② 협조(協助): 힘을 보태어 도움.
③ 협주(協奏):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④ 협찬(協贊): ㉠ 힘을 합하여 도움. ㉡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정답 ①

0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검토하시오.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바랍니다.

해설

초고를 고치는 것이므로 '교정(校訂)'이 적절하다.
②에 알맞은 한자는 '교차(交叉: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다. 전자 문서에 결재를 받아야 합격자를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에 알맞은 한자는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다. 전자 문서에 결재를 받아야 합격자를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에 알맞은 한자는 '재고(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이다.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교정(校訂):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② 교차(交差):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③ 결제(決濟): ㉠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 일.
④ 제고(提高): 쳐들어 높임. ㉮ 생산성의 제고/능률의 제고

>>정답 ①

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
>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해설

'애매어의 오류'는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선지에서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에서 '부패'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즉, 썩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에서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애매어의 오류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②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해설

③에서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예를 끌어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지문에서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가가 집을 짓는 내용을 끌어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설명 방식이다.

>>정답 ③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①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②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③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④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

각했다.

해설

고갱이 인상주의를 비판하며,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지문에서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문에서 반 고흐가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④ 세잔은 인상주의를 비판하며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 ②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해설

②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3장'에 붙여 써야 한다.
●제(第):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제일/제이/제삼.

① '좋은 걸'의 '걸(것은)'은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ㄴ'뒤에서 띄어 써야 한다.

③ 시간을 의미하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차'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차'의 경우 접미사 '-차'와 구별하여야 한다.
㉠ 차(次): 의존명사.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 예 입사 3년 차/ 임신 8주 차
㉡ 차(次): 접미사. (일정한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연구차/인사차/사업차

>>정답 ②

14.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해설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 '깎는'이 [깡는]으로 소리 나므로 'ㄲ'이 'ㅇ'으로 바뀐 교체에 해당한다.
깎는→ [깍는] (음절 끝소리 규칙)→ [깡는] (비음동화)

② '깎아'가 [까까]로 소리 나는 것은 연음 현상 때문이다.

③ '깎고'가 [깍꼬]로 소리 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깎고→ [깍고] (음절 끝소리 규칙)→ [깍꼬] (된소리되기)

④ '깎지'가 [깍찌]로 소리 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깎지→ [깍지] (음절 끝소리 규칙)→ [깍찌] (된소리되기)

>>정답 ①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①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③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해설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한다는 것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제안하였다"
② 2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며 노화가 제거되고, 심리 상태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협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에서 알 수 있듯 그 형태가 어떠할지는 알 수 없다. 또 그러한 예시가 3문단에 나와 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속의 정보 패턴)
④ 미래의 포스트휴먼은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등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재의 인간보다 과학 기술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해설

'크다/작다'의 경우 정도 반의어로 중간 항을 허용한다. 따라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ᄊᆞᄆᆞᆯ ㉠<u>ᄉᆞᆯᄫᅳ리</u> 하ᄃᆡ 天命을 疑心ᄒᆞ실ᄊᆡ ᄭᅮ므로 ㉡<u>뵈아시니</u>
놀애ᄅᆞᆯ 브르리 ㉢<u>하ᄃᆡ</u> 天命을 모ᄅᆞ실ᄊᆡ ᄭᅮ므로 ㉣<u>알외시니</u>

(말씀을 아뢸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③ ㉢에서 '–ᄃᆡ'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해설

이 문제는 <용비어천가> 제13장의 문법 사항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① '㉠ᄉᆞᆯᄫᅳ리'에서 '이(=사람)' 뒤에서 주격조사는 'Ø'로 나타낸다.
② '㉡뵈아시니'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이다. '재촉하다'의 옛말은 '뵈아다'이다.
③ '㉢하디'의 해석이 '많지만'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아니다.
④ '㉣알외시니'는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외–'는 '알다'에 결합된 사동 접미사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

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① 삼국사기 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②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④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지문에서 점술사의 신라가 발전할 거라는 예언이 적중한 다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였고,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는 선지는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① 점술가의 예언은 우리나라에서 '반달' 모양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지,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지문에서 중국의 월병은 한국과 달리 보름달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 듯이' 중국에서도 월병을 나누어 먹는다고 했을 뿐,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월병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④ 지문에서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이라고 월병을 설명하였으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해설

해당 부분은 성진이 '양소유'로 지내던 꿈에서 깨는 장면이다. ㉢은 성진이 꿈을 꾸기 전 사부와 10년을 같이 살던 일을 말하므로 가장 과거에 해당한다. 또, ㉣과 ㉡은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 꿈을 꾸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뒤에 벌어지는 과거에 해당한다. 그 중 ㉡은 양소유가 부모 슬하를 떠나 토번을 정벌하던 때 사부를 꿈에서 만난 것이므로, ㉣ 뒤에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 현재에 해당하므로 제일 마지막에 온다. 즉, '㉢–㉣–㉡–㉠' 순이 적절하다.

>>정답 ③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④ '승상'은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해설

'승상'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중'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② '승상'은 '중에 의해 꿈에서 깨게 될 때 까지도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희롱하나뇨?"를 통해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에 꿈에서 깨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여덟 낭자가 사라지고 난 뒤의 '승상'의 심정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중'의 진의를 의심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승상'이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주체가 '중'이라고 여기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중'을 남악에서 꾼 꿈에 등장한 '노화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답 ①

☞ **受驗生 여러분의 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

